




올바니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APOSTOLATE OF ALBANY

- 주 소: 17 Exchange St. Albany, NY 12205
- Cafe.daum.net/ kccalbany 
- 주임신부: 나도진 안젤로
- 총회장: 김현석 임마누엘

본당 전례	주일, 토(성모신심)	10시	고해성사	미사 전 성체현시로 미사 후 실시
안 내	첫주 목,대축일(평일)	19시 30분	병자, 유아세례, 혼인, 각종축복 (집,가정,차)	주임 신부에게 문의

연중 제12주일

2026년 6월 21일

[입당송]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예레 20,10-13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화답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과,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2독서] 로마 5,12-15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0,26-33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입당 197 봉헌 512 성체 164 파견 201

이번주 축일자

6/24: 배진수 세례자요한, 박정래 세례자요한, 김광식 세례자요한, 김병연 세례자요한, 홍경옥 요한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공인 성경(주석)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



주일 미사 전례 담당

날짜	전례력	복사	독서	해설	반주
6/21	연중 제12주일	김민우	이종훈/김성자	김진	MR
6/24 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조남훈/정창륜	김광식	-
6/28	연중 제13주일	최아인	나수경/박지완	김진	MR



안젤로 신부님의 복음 단상

주요 단어

- 1독서 -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 2독서 -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 복음 -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 단상

예수님은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 이제는 열두 제자를 부르고 당신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파견하셨다.

이 파견 설교에서 예수님은 사심 없이 그리고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신다. 또한 복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하고, 그분은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분에게 합당한 제자가 아니다.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이승에서 자기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고, 그분과 하느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내주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이는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만을 믿으라는 것이다. 하찮은 가격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느님의 주관 하에 있는데, 하물며 제자들의 생명이야 말할 것도 없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께서도 하느님 앞에서 그들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이는 지금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종말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복음 실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성찰하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하느님이 우리의 삶에 중심이라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기도 바치기.

□ 본당 소식

미사 안내

- 6월 24일 수요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미사는 오후 7시 30분입니다
- 6월 29일 월요일 성 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는 오후 7시 30분입니다

점심식사

- 이번주 점심식사는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성모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규 점심 식사는 9월에 재개 합니다.

총구역 공지

1. 클리프톤 파크 구역미사 : 6/26 금요일
2. 콜로니 구역미사 : 6/27 토요일

우리들의 정성

- 6/14 헌금 \$390, 교무금 \$650, 미사예물 \$20, 성모회비 \$40
- 6/7 미사인원 37명

제대회 공지

제대를 장식할 꽃을 봉헌하실 신자분들은 제대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